

한국 여성의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 및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 명 소[†] 한 영 석 이 현 주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광운대 산학협력단 호서대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에 차이가 있는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에서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64세에 해당하는 성인 여성 771명을 대상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및 행복한 삶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력, 결혼관계, 직업 및 소득수준에 따라 페미니즘 성향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페미니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역할과 여성활동의 목적 및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은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으며, 학생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그러나 반대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차별과 경시 및 집합적 행동은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으며, 주부 및 일반 사무직 및 영업직 여성 종사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은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및 행복한 삶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역할과 여성활동 목적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은 심리적 안녕감 및 행복한 삶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집합적 행동은 주관적 안녕감 및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적 변인에서도 유일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자매의 경우 삶의 질 변인들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앞으로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유주의 페미니즘,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행복한 삶

† 교신저자 : 김명소,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110-745) 충남천안시 안서동 산 120-1
E-mail : mskim@office.hoseo.ac.kr

페미니즘의 정의 및 유형

페미니즘(feminism)은 라틴어 페미나(femina, 여성)에서 파생한 말로서 원래는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였으나, 1890년대 우머니즘(womanism)에 대신하여 남녀평등이론이나 여성의 권리운동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페미니즘의 정의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사전에서는 보통 ‘남녀평등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권리 주장’으로 정의 되며, 가장 폭넓은 의미로는 ‘어떠한 방법이나 이유이건 여성이 종속에 대해 깨닫고, 그것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을 가리킨다(유혜련, 호승희, 1999).

페미니즘의 큰 흐름은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적 페미니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으로 구분 될 수 있다(김정선, 1997). 먼저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주장하는 운동의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다. 여성이 성별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 받는다고 가정하며(Richards, 1982), 평등과 재분배, 즉 동등한 임금, 동등한 시민권, 교육, 건강과 복지에 대한 동등한 기회,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 등을 위해 운동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건강, 노동, 교육, 법적 권리, 깨끗한 주택, 일반 여성의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여성들이 투쟁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발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급진적 페미니즘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주로 미국과 유럽의 젊은 중산계급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시작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성과 재생산을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여성의 정치적 의

식을 변형시켰다. 여성들이 사적인 억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슬로건은 남성지배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을 공통된 경험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가정에 도전함으로써 여성 억압에 대한 지식을 산출했으며, 가장 내적인 인간관계를 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라고 재규정함으로써 성을 정치화시켰고, 동시에 정상적이고 일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남성의 행동을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강간이나 여러 유형의 남성폭력을 공적인 정치적 이슈로 변화시켰다. 또한 여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억압에 주목했으며, 여성을 보편적인 피억압자로, 남성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고, 육체적으로 지배되는, 세상으로부터의 억압을 공유하는 자매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급진적 페미니즘은 자본주의를 수반하는 가부장제를 부정하고 이를 바꾸려는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로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특정한 역사 발전 단계에서 특정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한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이는 가부장제를 수반하는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계급이나 권력, 경제적 이해와 상관없이 여성으로서 여성의 이해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동시에 어떤 남성과는 연대하고 어떤 여성과는 대립하는 투쟁을 수반하는 피착취 노동계급의 이해를 위한 투쟁도 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위 세 가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관점에 따라 페미니즘 성향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자유주의 페미니

즘 관점을 선택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이 현재 여성들의 삶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현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따라 현대의 여성들이 누리고 있는 교육, 시민권, 건강, 개인적 자유 등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둘째,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이 가장 일반적인 페미니즘 사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과 정치적 실천이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가장 명확하게 이해되는 페미니즘이며, 일반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UNESCO(1984)의 주장에 근거한다.

삶의 질의 정의 및 측정유형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행복감, 유능감, 자긍심, 보람, 삶의 의미 등의 긍정적 정서’(한성열, 1995), 혹은 ‘여러 가지 생활측면에서 느끼는 안녕감 또는 행복감’(이순목, 1995)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개인, 가족, 사회의 주된 요소와 더불어 인간의 주관적 경험과 개인적 수용의 차이에 의해서 가늠 되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문선화 등, 2000). 보통 삶의 질이 높다 혹은 낮다는 표현이 쓰여 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삶의 전반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며(이현송, 1997), 때로는 안녕감 혹은 복지, 주관적 복지, 생활만족, 행복 등과 동의어로 표현되기도 한다(임희섭, 1996). 김의철 등의 연구(2004)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정의하여 ‘주관적 안녕감’ 보다 ‘삶의 질’을 사용하였다. 안녕감(well-being)이 높다고 개인이 지각할 때,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 높아지는데, 결국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삶의 질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 두 개념은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곧바로 삶의 질의 지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삶의 질이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개념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삶의 질은 개인의 안녕감 뿐 아니라, 광의의 개관적인 사회적인 지표들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삶의 질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주로 소단위의 연구였고, 전국적인 확률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적 요인들을 제외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만을 포함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삶의 질 또는 행복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정작 개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심리학자들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Cantri, 1965; Andrew & Withey, 1976; Cambell, 1976). 이러한 연구들은 주관적인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행복(happiness)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진행되어 왔다.

Diener(1984, 1994)는 주관적 안녕감이 삶에 대한 태도로써 기본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Campbell(1981)은 인지적-정서적 요소의 구분은 대부분은 어느 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 삶의 만족에 초점을 둘 때 그 평가는 인지적 요소를 고려하게 되고, 일상생활의 경험에 초점을 둘 때 그 평가는 정서적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많은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도구들은 두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여러 연구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이 구분됨을 보여주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Bradburn(1969)은 행복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포괄적 평가라고 생각했다. 그는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경험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주관적 안녕감이란 자신의 바람, 기대, 희망 또는 다른 준거 집단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한 인지적인 평가인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을 포함한 정서적 안녕감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Andrews & Withey, 1976).

한편, Ryff와 그의 동료들(1995)은 주관적 안녕감의 구조가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제안하였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utte & Ryff, 1997). 따라서 Ryff(1989)는 주관적 안녕감보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 주관적 삶의 질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임상, 상담, 발달 심리학 등에서의 여러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① 자아수용(self-acceptance), ②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율성(autonomy), ③ 환경에 대한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 ④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그리고 ⑤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과 같은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었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동시에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삶의 질이나 안녕감의 구성요소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Diener(1984)의 주관적 안녕감과 Ryff(1989)가 제시한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김명소와 그의 동료들(2003)은 앞선 연구를 전국적인 단위의 연구로 확대하여, 한국인들이 지각하는 행복한, 좋은,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척도를 제작한 후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① 경제력, ② 성취감 및 자기 수용, ③ 여가, ④ 사회적 지위 및 인정, ⑤ 자기개발 및 목표추구, ⑥ 자립성, ⑦ 사회, 정치, 문화, 환경, ⑧ 종교, ⑨ 이타심, ⑩ 자녀의 바른 성장, ⑪ 부모/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⑫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 ⑬ 대인관계, ⑭ 외모, ⑮ 긍정적 인생관, ⑯ 건강 등의

16개 하위척도들로 구성된 행복한 삶 척도가 개발되었다. 16개 요인들은 심리학 이론들에서 제기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6개 요인들(자아수용,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삶의 영역들을 비교적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삶의 질의 측정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Diner(1984, 1994)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태도와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며,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경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명소 등(2003)의 행복척도는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 요소 외에 삶에 대한 객관적 요소까지 포괄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가 삶의 질의 각기 다른 측면들을 설명하므로,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자유주의 페미니즘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삶의 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자유원리에 입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태어났고, 사람의 능력 차이는 문화적 학습에 의해서 습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차별의 궁극적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의 법적, 정치적 불합리성과 여성 개인의 무능력 혹은 무지로 인해 야기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성문제는 우선 정치적, 법적 개혁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장치의 개선을 통

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강평순, 1997). 또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문제의 극복 방법으로 양성적 인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양성성을 중시하는 것은 한 개인의 생물학적 성이 결코 그 사람의 심리학적 또는 사회적 성별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궁극적인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실현은 교육적 법적 개혁을 수반하므로 여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정희, 2004).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삶의 질의 유형을 예 측해보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적 태도 또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사회구현이 행복한 삶을 유발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적 태도 및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관적 객관적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삶의 질 유형 중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질의 인지적 요소와 더불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성격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삶의 질의 유형 중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철학적, 문학적 배경 하에서 연구되어온 페미니즘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 개인의 페미니즘 성향과 삶의 질을 측정하여, 이를 통해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한 사람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의 차이를 통해 여성의 삶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구 통계에 따라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

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4세 성인 771명을 선정하여 자유주의 페미니즘 척도,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및 행복한 삶 척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771명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에 요약되었다.

표 1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전체		771	
연령	20-29세	190	(24.7)
	30-39세	165	(21.5)
	40대 이상	413	(53.8)
결혼상태	미혼	173	(22.4)
	기혼, 동거	559	(72.5)
	이혼, 별거, 사별	39	(5.0)
학력	고졸이하	445	(57.7)
	대졸이상	326	(42.3)
거주지역	서울	373	(49.3)
	인천	75	(10.0)
	부산	111	(14.7)
	대구	105	(13.9)
	광주	38	(5.0)
	대전	40	(5.3)
	춘천	15	(2.0)
직업	학생	110	(14.3)
	주부	356	(46.1)
	자영업	91	(11.8)
	영업직	46	(6.0)
	사무직	74	(10.0)
	생산직	22	(2.9)
	전문직	17	(2.2)
	공무원	6	(0.8)
	기타	49	(6.3)

측정 도구

자유주의 페미니즘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즘 태도와 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자유주의 페미니즘 척도를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여러 갈래들 중에서도 그 사상과 정치적 실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손쉽게 다가가고 이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측정하기 위해 Besty Levonian과 Morgan(1996)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태도와 이데올로기 척도(Liberal Feminist Attitude and Ideology Scale; LFAIS)’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LFAIS는 3개의 상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적절한 역할 지각에 초점을 둔 ‘성역할(Gender Roles)’요인($n=6, \alpha=.60$)이며,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측정하는 ‘페미니즘 목적(Goals of Feminism)’요인이며, 세 번째는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Feminist Ideology) 요인이다. 페미니즘 목적 요인은 다시 ‘여성 활동의 포괄적 목적(Global Goals)’($n=9, \alpha=.83$)과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Specific Political Agendas)’($n=16, \alpha=.78$)의 두 하위 요인으로 나뉘어 진다. 또한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요인

은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뉘어 지는데 먼저 ‘차별과 경시(Discrimination and Subordination)’ 요인(n=8, $\alpha=.73$)은 여성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고 여전히 그렇다는 믿음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 요인(n=7, $\alpha=.61$)의 경우 집단행동에 의한 변화에 기여이 참여할지의 의지를 묻는다. 마지막으로 ‘자매애(The Sisterhood)’ 요인(n=7, $\alpha=.61$)은 다른 여성들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성을 스스로 지각하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된다. 각 문항들은 6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6: 매우 동의한다.’)상에서 평정되었다. 전체적인 문항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삶의 질

페미니즘 사상과 삶의 질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행복한 삶 척도(김명소 등, 2003)와 함께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89), 주관적 안녕감 척도(Diener, 1984)를 사용하였다.

① 행복한 삶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김명소 등(2003)이 개발한 행복한 삶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6개 하위 구성요인, 9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alpha=.87\sim.64$). 요인별로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여가생활을 즐길 만큼의 경제력이 있다.’(경제력), ‘나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낀다.’(성취 및 자기수용), ‘나는 문화생활을 자주 즐기는 편이다.’(여가), ‘나는 남들이 부러워 할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사회적 지위 및 인정), ‘나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자기계발 및 목표추구),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자립성), ‘나는 우리사회 직장구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다.’(사회, 정치, 문화 환경), ‘신앙과 종교는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종교), ‘나는 종종 남을 위해 봉사한다.’(이타심),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자녀의 바른 성장), ‘나는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낸다.’(부모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우리 부부(나와 내 이성친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준다.’(배우자와의 사랑 및 신뢰), ‘나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많이 있다.’(대인관계), ‘나는 균형 잡힌 외모를 갖고 있다.’(외모), ‘나는 특별히 욕심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산다.’(긍정적 인생관), ‘나는 건강에 대해 자신이 없다.’(건강) 등이 있다.

②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는 Ryff(1989)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율성, 환경지배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등 총 6개 하위 요인,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lpha=.62\sim.86$). 각 요인에는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자율성), ‘내게 주어진 상황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환경 지배력),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자신에 대해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다.’(개인적 성장), ‘나는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삶의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인정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긍정적 대인관계), ‘살아 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자아수용) 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③ 주관적 안녕감은 Diener(1984)의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3개 하위 구성요인 13문항을 사용하였다($\alpha=.87\sim.62$). ‘삶에 대한 만족’ 요인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나의 삶은 나의 이상

에 가깝다.’, ‘내 삶의 조건들은 아주 좋다’,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소유해 왔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의 정도를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매우 동의한다.’) 상에서 평정 받는다. ‘정서(부적정서, 긍정적 정서)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은 ‘공포’, ‘슬픔’, ‘애정’, ‘죄의식’, ‘화남’, ‘만족감’, ‘기쁨’, ‘자부심’ 등의 정서를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느꼈었는지의 정도를 7점 척도(‘1:전혀 느끼지 않았다.’ ~ ‘7:매우 자주 느꼈다.’)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분석 방법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서의 차이와 삶의 질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 변량분석,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은 SAS windows용 8.01를 이용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페미니즘 차이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학력에 따른 페미니즘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페미니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요인에서의 차이를 보면 성역할과 여성활동의 목적 및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의 경우에는 대졸이상이 고졸이하보다 높았으나, 대조적으로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집단행동에서는 고졸이하의 여성이 대졸이상의 여성보다 더 집합적 행동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또한 차별과 경시 및 자매애는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전반적 동의도 평균치를 고려해 볼 때, 학력에 관계없이 전체 여성은 차별과 경시를 받아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력이 높은 여성은 학력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남성

표 2. 학력에 따른 페미니즘 성향 차이분석 결과

		고졸이하(N=445)	대졸이상(N=326)	t
		M(SD)	M(SD)	
성역할	성역할	3.75(.53)	4.20(.69)	-9.75***
양성동등	여성활동 목적	4.27(.60)	4.62(.61)	-8.08***
사회추구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3.91(.51)	4.09(.51)	-5.00***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	차별과 경시	4.07(.65)	4.07(.57)	-0.08***
	집합적 행동	3.91(.52)	3.64(.74)	5.59***
	자매애	3.88(.55)	3.85(.56)	0.91***
전체		3.96(.39)	4.08(.37)	-4.11***

주. *** $p < .001$

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고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다양성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력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급진적으로는 사회의 재구조화를 위한 단체 행동이 더 필요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력이 낮은 여성들이 학력이 높은 여성들에 비해 더 급진적인 행동의식을 보이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여성들이 높은 여성들에 비해 남녀차별에 대해 이것이 더 부당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지각에 근거하여 단체행동을 통한 차별을 극복하고자하는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

연령에 따른 페미니즘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표 3), 기대한 바와 같이 젊은 층에서의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전체 척도에서 페미니즘 성향은 20대와 30대에 비해서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낮았다. 그러나 세부요인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보였다. 먼저, 성역할

과 여성 활동의 목적 및 세부적인 정책적 규약에서는 20대가 30-40대에 비해서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차별과 경시 및 집합적 행동은 20대에 비해서 30-40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매애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의 경우, 사회경험을 하지 않은 여대생이 많을 수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학교라는 양성평등적 기회가 많은 곳에 노출되었으며,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남녀 성역할과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어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30대와 40대의 경우, 20대 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남녀 경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에 노출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20대에 비해 남녀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결과, 집단행동을 통해 남녀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혼여부에 따른 페미니즘의 정도를 비교한

표 3. 연령에 따른 페미니즘 비교

		① 20대(N=190)	② 30대(N=165)	③ 40대 이상N=413)	F	Tukey
		M(SD)	M(SD)	M(SD)		
성역할	성역할	4.37(.70)	3.95(.56)	3.73(.54)	75.85***	3 >2 >1
양성동등 사회추구	여성활동 목적	4.68(.65)	4.46(.56)	4.27(.61)	29.78***	3 >2 >1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4.15(.53)	4.01(.47)	3.90(.51)	15.70***	3 >2 >1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	차별과 경시	4.02(.56)	4.18(.66)	4.05(.62)	3.38*	2 >1
	집합적 행동	3.42(.77)	4.04(.57)	3.88(.51)	56.12***	2 >3 >1
	자매애	3.85(.53)	3.93(.56)	3.85(.56)	1.35	
전체		4.08(.38)	4.10(.39)	3.95(.38)	12.91***	1 ,2 >3

주. * $p < .05$, ** $p < .01$, *** $p < .001$

결과에서는(표 4), 기혼, 미혼, 이혼-별거-사별의 집단 간에 전체평균점수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요인에서는 성역할, 여성 활동의 목적, 세부적인 정치적 규약 및 집합적 행동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기혼 집단이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 요인은 집합적 행동이었다. 미혼의 경우에는 기혼이나 이혼-별거-사별 집단에 비해 성역할과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지위를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여성 활동의 목적 및 세부적 정치적 규약을 통해서 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력과 연령에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즉, 미혼 집단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과 학교에서의 평등경험과 교육을 통해 기혼 및 이혼-별거-사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동등한 책임과 성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집단과 이혼-별거-사별집단의

경우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직접적인 성차별 경험과 사회적 제약에 기반하여, 성역할 의식과 양성평등의식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단체 행동을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에 따른 차이분석

직업에 따른 페미니즘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 여성 집단은 직업에 따라 페미니즘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이와 같은 차이는 흥미롭게도 전문직 여성 집단과 여성 공무원 집단의 차이를 바탕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직 여성 집단이 전체 여성 직업에서 가장 페미니즘 성향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직업은 여성 공무원 집단이었다.

페미니즘의 세부요인에서 또한 여성 직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적인 경향은 여성 학생 집단과 여성 직업집단의 차이로 요약된다. 즉, 여성 학생집단의 경우, 성역할 의식과 여성 활동의 목적, 세부적인 정치적 규약에서 여성 직업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표 4. 결혼 관계에 따른 비교

		① 미혼(N=173)	② 기혼(N=559)	③ 이혼/별거/사별(N=39)	F	Tukey
		M(SD)	M(SD)	M(SD)		
성역할	성역할	4.40(.68)	3.81(.56)	3.79(.67)	68.75***	1 > 2,3
양성동등 사회추구	여성활동 목적	4.66(.66)	4.35(.60)	4.34(.67)	17.24***	1 > 2,3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4.12(.51)	3.96(.51)	3.73(.46)	10.89***	1 > 2 > 3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	차별과 경시	4.01(.55)	4.10(.64)	3.97(.64)	2.04	
	집합적 행동	3.35(.74)	3.93(.53)	3.85(.69)	64.42***	2,3 > 1
	자매애	3.82(.52)	3.88(.57)	3.88(.52)	0.89	
전체		4.06(.36)	4.00(.39)	3.93(.42)	2.31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직업에 따른 비교

	① 학생 (N=110)	② 주부 (N=356)	③ 자영업 (N=91)	④ 영업직 (N=46)	⑤ 사무직 (N=74)	⑥ 생산직 (N=22)	⑦ 전문직 (N=17)	⑧ 공무원 (N=6)	⑨ 기타 (N=49)	F	Tukey
	M(SD)	M(SD)	M(SD)								
성역할	4.62(.60)	3.75(.56)	3.86(.60)	3.88(.45)	3.94(.66)	3.53(.31)	4.37(.51)	4.02(.72)	3.97(.57)	27.47***	1 > 2, 3, 4, 5, 6, 9 7 > 3, 6
여성활동 목적	4.73(.58)	4.31(.61)	4.42(.62)	4.47(.55)	4.56 .65)	4.07(.78)	4.75(.54)	4.24(.81)	4.30(.60)	7.36***	1 > 2, 3, 6, 9 5 > 2, 6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4.18(.47)	3.95(.52)	3.94(.49)	3.98(.54)	4.05(.51)	3.78(.64)	4.13(.53)	3.67(.55)	3.92(.48)	3.45***	1 > 2, 3, 6
차별과 경시	3.84(.39)	4.08(.64)	4.17(.58)	4.20(.67)	4.19(.64)	3.99(.88)	4.19(.59)	3.75(.85)	4.09(.56)	3.09**	2, 3, 4, 5 > 1
집합적 행동	2.98(.52)	3.91(.53)	3.95(.51)	4.02(.50)	3.99(.62)	3.91(.65)	3.82(.68)	3.74(.51)	3.99(.57)	37.22***	1, 2, 3, 4, 5, 6, 7, 8, 9 > 1
자매애	3.75(.47)	3.86(.55)	3.87(.53)	3.96(.65)	3.94(.59)	4.01(.61)	3.84(.67)	3.67(.71)	3.94(.55)	1.32	8 > 7
전체	4.02(.28)	3.98(.40)	4.03(.38)	4.08(.38)	4.11(.40)	3.88(.53)	4.18(.42)	3.85(.49)	4.04(.38)	2.16*	7 > 6

주. * $p < .05$, ** $p < .01$, *** $p < .001$

높은 페미니즘 성향을 보였고, 반대로 여성 직업집단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인 차별과 경시 및 집합적 행동에서 여성 학생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페미니즘 성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장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학교장면은 일련의 활동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양성평등을 교육하며, 경쟁의 결과는 남녀 간의 집단 간 경쟁 보다는 개인 간 경쟁의 결과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경험하는 직업세계에서는 진입단계에서부터 여성에게 차별을 경험시키며, 또한 진입 후에도 여성에게 상대적인 차별과 규제로 인해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직업집단은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현재 직업장면에서 남녀의 지위차이 및 차별

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여, 여성 집단들 간의 집합적인 노력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분석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페미니즘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득수준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요인인 성역할, 여성활동의 목적 및 집합적 행동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 세부적 정치규약, 차별과 경시 및 자매애에서는 소득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적 차이가 나타난 성역할과 여성활동의 목적은 150만원 미만 집단이 그 이상 집단에 비해 더 높았고, 반대로 집합적 행동에서는 150만원 미만 집단이 그 이상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6. 소득수준에 따른 비교

		①	②	③	④	⑤	F	Tukey
		150 미만 (N=164)	150~250 (N=234)	250~350 (N=224)	350~450 (N=77)	450 이상 (N=63)		
		M(SD)	M(SD)	M(SD)	M(SD)	M(SD)		
성역할	성역할	4.20(.75)	3.88(.56)	3.83(.57)	3.79(.63)	3.96(.70)	10.46***	1>2 ,3 ,4
양성동등 사회주의	여성활동 목적	4.56(.63)	4.36(.62)	4.34(.61)	4.38(.67)	4.55(.66)	4.33**	1 >2 ,3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4.04(.50)	3.96(.51)	3.95(.51)	3.99(.57)	4.04(.59)	1.12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	차별과 경시	4.04(.61)	4.06(.58)	4.12(.62)	4.05(.63)	4.07(.77)	0.47	
	집합적 행동	3.49(.78)	3.88(.55)	3.93(.57)	3.81(.51)	3.84(.66)	13.56***	2 ,3 ,4 ,5>1
	자매애	3.85(.49)	3.89(.57)	3.91(.59)	3.78(.57)	3.83(.56)	0.88	
전체		4.03(.36)	4.01(.39)	4.01(.38)	3.97(.41)	4.05(.47)	0.54	

주. * $p < .05$, ** $p < .01$, *** $p < .001$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페미니즘 성향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분석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과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및 행복감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표 7과 같이 페미니즘 요인 중 성역할과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은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여성활동 목적은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차별과 경시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또한, 집합적 행동 요인은 주관적 안녕감, 행복한 삶에서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매애 요인은 모든 삶의 질 요인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고, 전체적인 페미니즘 성향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및 행복한 삶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을 예측변인으로 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페미니즘 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을 준거로 해서 전체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2개 요인이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두 변인 총 설명변량의 18%를 설명하고 있었다. 여성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에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부요인은 여성활동의 목적이었으며, 다음으로 성역할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7. 페미니즘 성향과 삶의 질과의 상관분석

성역할	여성활동 목적	세부적인 정 치적 협약	차별과 경시	집합적 행동	자매애	전체 (페미니즘)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성역할								
여성활동 목적	.37***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20***	.64***						
차별과 경시	.06	.52***	.62***					
집합적 행동	-.10**	.22***	.21***	.43***				
자매애	-.11**	.36***	.51***	.49***	.21***			
전체(페미니즘)	.38***	.80***	.80***	.80***	.52***	.61***		
심리적안녕감	.32***	.38***	.23***	.14***	.00	.05	.29***	
주관적안녕감	.10**	.12**	.07*	-.04	-.13***	.01	.03	.33***
행복한 삶	-.04	-.02	.01	-.04	-.08*	-.01	-.05	.41***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자유주의 페미니즘성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R ²	ΔR ²	F	β
여성활동 목적	.18	.02	.14	.14	126.05***	0.297
성역할	.13	.02	.04	.18	37.46***	0.215

주. *** $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삶의 질의 의식적인 측면을 다루고 또한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측면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페미니즘 성향의 하위 요소로서 여성활동의 목적과 성역할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서 자신의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측면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로 해서 전체 여성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2개 요인이 여성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두 요인 총 설명변량은 4%를 설명하고 있었다. 여성집단의 주관적 안녕감에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부요인은 집합적 행동이었으며, 다음으로 여성활동의 목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태도이며, 주관적인 통합적 평가이다. 즉, 삶에 대한 객관적 요소들 각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 안녕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집합적 행동은 부적인 관련성을 나타내고, 여성활동의 목적은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즉, 여성이 단합하여 사회적 권리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성적 평등을 위해 급진적인 사회의 재구조화 및 현재의 남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등주의

표 9.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R ²	△R ²	F	β
집합적 행동	-.11	.03	.02	.02	12.01***	-.132
여성활동 목적	.16	.04	.02	.04	16.77***	.184

주. *** $p < .001$

를 넘어서는 강한 집합적 행동을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여성 집단의 주관적인 안녕감은 낮았다. 한편, 집합적 행동이나 급진적 태도가 아닌 양성평등 사회를 추구해야한다고 지각할수록 여성 집단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았다.

그러나 양성평등 추구하기 위해서 집합적 행동의도 자체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을 낮춘다는 단순한 해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 집단이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방략으로 집합적 행동을 쓰려하는 경향성은 이미 차별과 규제를 통해서 억압을 받아왔다고 지각하고,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지각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도로 추론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집합적 행동의도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을 낮춘다고 하기 보다는 차별과 규제를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집합적 행동의도를 보이고, 동시에 삶에 대해 전반적인 낮은 평가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성향이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

페미니즘 성향이 행복한 삶 혹은 바람직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전체 여성집단을 대상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집합적 행동만이 행복한 삶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방향은 주관적 안녕감의 결과와

표 10.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R ²	F	β
집합적 행동	-.06	.03	.01	5.44*	-.084

주. * $p < .05$

동일하게 집합적 행동성향을 보일수록 행복감이 낮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철학적, 문학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온 페미니즘에 대한 심리학적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전국단위 설문을 통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페미니즘 성향의 차이와 함께 페미니즘 성향이 개인의 삶의 질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었다.

구체적으로 페미니즘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들의 사회적 경력과 가정에 대한 조율과 가정에서의 남성 권위에 초점을 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역할’ 요인은 학력이 높을수록(대졸이상), 나이가 어릴수록(20대), 미혼이고 학생이거나 전문직, 혹은 공무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 페미니즘의 목적이라는 상위 개념에 속한 ‘여성활동 목적’과 ‘세부적인 정치협약’ 요인 또한 모두 20대 대졸이상의 미혼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양희와 정경아(2000)의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보인다. 김양희와 정경아는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를 통해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을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앞서 결과에서 언급하였듯 사회적 경험이 적거나, 비교적 성적 평등을 보장 받는 조직에 속한 여성일수록 여성 성역할에 대한 강한 신념과 양성평등에 대한 구체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에 속한 차별과 경시, 집합적 행동, 자매애의 세 개 요인을 살펴보자면, 먼저 ‘차별과 경시’는 연령과 직업 변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보다는 30대가, 학생들 보다는 주부나 자영업자, 영업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차별과 경시에 대한 지각을 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합에 의한 변화 의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지를 측정하는 ‘집합적 행동’ 요인은 고졸이하, 30~40대, 기혼 혹은 이혼/별거/사별의 기혼 경험자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보다는 주부, 자영업, 영업직, 사무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매애’ 요인은 페미니스트 사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려는 필요성을 반영하였지만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집합적 여성 정체성과 관련된 여성집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은 인구통계적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차별과 경시 및 집합적 행동에서의 결과는 김금미와 한영석(2002)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금미와 한영석은 여성의 남녀동등추구의 행동의도를 성별 사회정체성과 차별지각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성별 사회정체성이 높

고 남녀차별을 많이 지각한 사람들이 남녀동등추구 행동의도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남성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아왔고,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각한 여성일수록, 집합적 행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차별과 경시 및 집합적 행동 간의 관계성을 추가분석한 결과 두 요인간의 상관계수(r)가 .4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위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단순히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양성평등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대신에 차별지각에 선행하여, 성별 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행동의도의 보다 근본적인 선행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차별과 경시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집합적 행동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과 두 요인간의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사회정체성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갈 수 없다고 느끼고, 남성이 유지하고 있는 벽이 너무 높고 견고하다고 지각하며, 또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각할 때, 여성들 자신이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고, 그 결과 여성들의 집합적, 집단적 행동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김금미와 한영석(2003)의 연구에서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성을 높이기 하기 위한 전략을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 따라 소개된 바 있다. 김금미와 한영석은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남녀차별 또

는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다르다는 인지적 사실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유로 남녀차별은 성별 사회정체성의 관점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현재 심리학 관점에서 여성학을 바라보는 최신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심리학을 배경으로 여성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관점 중에 하나는 Bem의 양성성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여성학 연구자들은 양성성의 장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양성성의 성격만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정진경(1994)은 여성문제에서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개인만을 보는 관점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Bem 또한 수용하여, 성별-도식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 특성은 더 이상 성별을 갖지 말아야 하며, 사회는 모든 상황에 성별을 투사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정진경, 1994 재인용).

한편 소득 수준에 따른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의 차이는 성역할과 여성활동 목적에서 150만원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고, 집합적 행동은 150만원 미만 집단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력, 결혼관계 및 직업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이 소득 수준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소득 수준 150만원 미만 집단에 다른 인구통계적 특성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득 수준 집단간 차이에서 학생집단을 제외하고 소득수준 집단 간에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 차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 전체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과 6개 하위 모두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은 심리적 안녕감과 가장 많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예측한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의 요소 중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성격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의 주관적 요소인 주관적 안녕감과 이에 객관적 요소가 포함된 행복한 삶의 척도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페미니즘 성향이 양성평등적 태도와 가치를 지향하고, 이에 대한 사회실현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있지만, 현 사회가 여성들이 지각하고 느끼기에 만족할 만한 양성평등적 사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지각하고 느낄 수 있는 영향요인을 찾아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삶의 질을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부요인으로 보면 가장 큰 설명량을 보인 것은 여성활동 목적($\beta=.297$)이었으며, 두 번째로 성역할 요인($\beta=.297$)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질의 의식적인 측면으로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다룬다. 따라서 페미니즘 성향의 하위요소인 여성활동 목적과 성역할에 대한 지각 정도에 따라 한 개인의 사회적인 자신감, 즉 남성과 비교하여 스스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영향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통합적 평가

인 주관적 안녕감은 집합적 행동($\beta=-.132$)과는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고, 여성활동의 목적($\beta=.184$)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즉 여성 스스로 우리나라의 현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강력한 투쟁, 혹은 집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낮아졌으나, 그러한 급진적 행동 실천 의지보다는 여성활동의 정치적인 광범위한 목적을 단순히 인지하는 것은 오히려 주관적 안녕감을 높여 준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집단행동 실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경험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이미 살아가면서 그러한 차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집단행동에 대한 고려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에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은 집합적 행동($\beta=-.084$)과 부적인 관계성을 보였다. 행복한 삶 척도는 개인의 삶에서 행복과 관련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집합적 행동 성향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낮추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논리와 같이 집합적 행동 성향의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합적 행동이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1%로써 높지 않은 설명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복한 삶과 집합적 행동의 단순상관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행복한 삶과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간의 단순상관은 집합적 행동만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정도 또한 -.08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복한 삶 척도의 특성과 관련된이다. 즉, 행복한 삶은 삶의 질의 객관적 요소이며, 페미니즘 성향은 양성평등이라는 태도적 요소이므로 이 둘간의 관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인구 통계적 차이를 밝힘으로, 향후 자유주의 페미니즘 연구에 대한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의 통찰을 제공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여성학의 궁극적 목표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 명제를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과 최초로 접목하여 해석을 시도한 점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이들 요인들의 관계를 조절 또는 매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정치, 교육 등 사회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지각을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 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직업분류에서 일부 직업군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을 포함하여 그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페미니즘 성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성향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페미니즘 성향은 급진적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등 상이한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페미니즘 전반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

가 있다. 앞으로는 서로 다른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각각의 페미니즘 성향이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연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평순 (1997).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 Wollstonecraft, Mill과 Woolf를 중심으로,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영어영문학연구, 39(1), 153.
- 김금미, 한영석(2002). 차별지각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여성의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 1-15.
- 김금미, 한영석(2003).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여성연구, 제64호, 5-44.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명소, 임지영 (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과의 관계 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 김양희, 정경아(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23-44.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973-1002.
- 김정선 역 (1997).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문예출판사.
- 문선화, 류기형, 김경호, 이경남, 홍봉선 (2000). 아동의 삶의 질: 과거, 현재, 미래. 한국아동복지학회, 9, 12-17.
- 유혜련, 호승희 역 (1999). 페미니즘사전, 동문선
- 이순목 (1995). 직업생활의 질과 인생의 질. 삶의 질의 심리학, 1995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77-122.
- 이정희 (2004).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제3세계 페미니즘까지 (From Liberal Feminism to Third Feminism),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19,192-220
- 이현송 (1997). 한국인의 삶의 질: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 269-301.
- 임미향, 김의철, 박영신 (2005). 한국사회 삶의 질 지각에 대한 분석: 한국 초등학교 부모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14(2), 213-227.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정진경 (1994). 여성학 방법론(Feminist Methodology): 심리학 연구의 여성학적 접근 방법.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10, 283-306.
- 한성열 (1995). 삶의 질과 내재적 동기의 실현. 삶의 질의 심리학, 1995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1-22.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Besty , Levonian., & Morgan. (1996). Putting the feminism into feminism scales: Introduction of Liberal Feminist Attitude and Ideology Scale(LFAIS). *Sex Roles*, 34, 359-390.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 Hill.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ntril, H. (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 J.: Rutgers University Pres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 Emmons, R.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Richards, J. R. (1982). *The Sceptical Feminist: A Philosophical Enquiry*, Harmondsworth, Penguin.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argent, L. (ed), (1981). *Women and Revolution: A Discussion of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London, Pluto Press.
- Schmitte, P.S., & Ryff, D.C. (1997). Personality and well-being: What is the conn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UNESCO (1984). *Social Science Research and Women in the Arab World, Paris*, UNESCO and London, Frances Pinter.
- 1 차원고접수: 2006. 2. 13.
심사통과접수: 2006. 3. 25.
최종원고접수: 2006. 3. 28.

Explorations on the Feminism of Korean Women on the bases of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and its Effect on Well-being

Myoung-So Kim

Young-Seok Han

Hun-Joo Lee

Hoseo University

Kwangwoon University

Hoseo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1) the liberal feminism of Korean women on the bases of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and (2) the its impact on their well-being. The Liberal Feminist Attitude and Ideology Scale as well as three quality of life scales(i.e., Subjective Well-being Scal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and Happy Life Inventory) were administered to a nationwide sample of 771 Korean women. Results showed that the degree of liberal feminist attitude and ideology differed according to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such as individuals' marriage status, occupation,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The levels of gender roles, global goals, and specific political agendas were higher for those women who were better educated, younger, and more professional in their career. On the contrary, the levels of discrimination and subordination as well as collective action were higher for those who were older, less educated, and less professional.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most of liberal feministic attitude and ideology factors affected the Korean women's perception on their quality of life. Specifically, gender role and global goals were the important variables for predicting or explaining individuals' psychological well-being. Specific political agendas affected bo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appy life. However, collective actions negatively affected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happy life, while sisterhood had no relation with any criter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s well as the future directions of this area were discussed.

key words : Liberal Feminism,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Happy Life,

부록. 자유주의 페미니즘 척도 (Liberal Feminist Attitude and Ideology Scale)

-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4) 약간 동의한다. (5) 동의한다. (6) 매우 동의한다.

I. 성역할 (Gender Roles)

1. 어머니의 이혼이나 재혼 시, 아이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일이다
2. 만약 남편이 가족 중 유일한 수입원 이라면 경제적 문제에서의 결정권은 그에게 주어야한다
3. 남성과 여성의 수입이 같다면 데이트 비용을 분담해야한다
4.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 최종적 권한을 가져야한다
5. 남편과 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데 있어 동등한 책임을 져야한다
6. 어린아이들이 있는 여성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의무는 가정과 가족이다
7. 집에 머무르며 아내 대신 가사를 돌보는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보다 남자답지 않다
8. 직장여성도 직장이 없는 어머니처럼 자녀들과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9. 여성이 직장생활을 원한다면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것이 자신의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
10. 여성은 남성보다 옷과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II. 페미니즘의 목적 (Goals of Feminism)

▶ 여성활동 목적 (Global Goals)

11. 우리나라의 대통령후보로서 여성도 남성만큼 진지하게 고려되어야한다
12. 교육을 받는 것은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얻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부분이다
13. 여성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남성이 더 나은 지도자 자질을 가지고 있다
14. 직장생활의 기회는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주어져야한다
15.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상관없이, 능력을 갖추고 직업이 요구하는 훈련을 받았다면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한다
16. 남녀평등은 정당한 목표이다
17. 남성은 현재보다 여성을 더 존중해야한다
18.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19.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을 함에 있어 그들의 성(gender)에 의해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
20. 자녀양육은 남성이하든 여성이하든 사회에서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세부적인 정치적 협약 (Specific Political Agendas)

21. 같은 일을 하고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22. 많은 직장여성들이 그들보다 직업을 더 필요로 하는 남성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23. 가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 사회보장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24. 정부는 부모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탁아시설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25. 아이들에게 좋은 탁아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책임이다
26. 낙태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27. 여성은 낙태를 하기 위해서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예:가족)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28. 의사들은 여성의 건강문제를 좀 더 신중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29. 만약 남성이 임신하는 성(gender)이었다면, 좀 더 믿을 수 있고 편리한 피임 방법들이 개발되었을 것이다
30.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31. 우리 국회는 성 평등과 관련된 더 많은 법을 통과시켜야한다
32. TV에서 여성들이 훌륭한 역할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33. 만약 어떤 회사의 광고가 성차별적이라면 그 회사 제품을 불매하는 것은 합당하다
34. 여성에 대한 폭력은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35. 남편과 그 아내사이의 강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36. 성희롱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37. 강간문제를 다룰 때 강간 피해자가 평소에 성에 대해 갖고 있던 태도나 행동을 고려해야한다
38. 게이와 레즈비언커플들은 길을 걸을 때 손을 잡고 걷는 것과 같이,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39. 게이와 레즈비언커플들도 배우자에 대해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혼자 특권을 제공 받아야한다
40. 성적 상대가 많은 여성들이 반드시 문란한 여성은 아니다

III.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 (Feminist Ideology)

▶ 차별과 경시 (Discrimination and Subordination)

41. 비록 몇몇 상황들이 변하기는 했지만, 여성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아직 불평등 하게 대우 받고 있다
42. 여성은 인류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그들의 성 때문에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왔다
43. 역사에서 여성들의 업적은 남성들의 업적만큼 강조되지 않았다
44.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부분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5. 음란물들에서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다
46. 남성들은 아직도 여성들의 생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47. 여성은 이미 삶의 모든 중요한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 받고 있다
48.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다
49.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이류(second class)시민으로 취급 받는다
50. 모든 남자들은 남성지배체제로부터 경제적, 성적, 심리적 이득을 얻는다

▶ 집합적 행동 (Collective Action)

51. 여성들은 단합해서 이 나라에서 평등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52. “여성운동”은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들과는 관련이 없다
53.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54. 성적지위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사회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55. 여성은 정치적 활동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각자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차별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다
56. 여성들이 그들의 사회적 역할의 몇몇 측면들에 대해 불만스럽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저항하는 방식은 잘못 되었다
57. 대부분의 집단적 저항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항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로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58. 성적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자신의 삶에서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59. 대부분의 집단적 저항은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 한다
60. 일이 되어가는 대로 가만히 놓아둔다면, 결국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대우 받게 될 것이다

▶ **자매애 (The Sisterhood)**

61. 이 나라에서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다
62.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의 여성들도 삶에서 겪는 일이다
63. 강간당한 여성에 대해서 들을 때 나는 “그게 나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 한다
64.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 때 나는 단지 같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느낀다
65. 여성으로서, 우리는 특히 다른 여성들을 돕는 법안을 지지 할 필요가 있다
66. 여성들은 자신들의 남자친구나 남편과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의 다른 여자들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 한다
67.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68. 한 여성이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들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69. 여성들은 남성들과의 연대보다 서로에 대한 더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
70. 여성들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